

# 定款改正案 留保의 餘韻 남기고 .....

# 大宗會 '86定期總會 終了

## 豫·決算案 等 無修正 通過

大宗會定期總會는 定款 第三章 第九條 및 同 第一一條의 規定에 依하여 지난 四月 二十七日, 서울 東大門區 忘憂洞 所在, 용궁갈비 집 大廳에서 盛大히 舉行하였다. 午前 十一時부터 始作된 이날 總會에는 京鄕各地에서 三百五十餘名의 宗親이 參席하였는데, 國民儀禮와 先祖 會長(明會)으로 부터 「列先祖에 對한 顯揚事業과 宗親間의 親睦을 더욱 敦篤히 하므로서 社會에 垂範이 되자...」는 要旨의 開會辭가 있었고, 常任 副會長(高會)의 前年度 總會 會議錄 朗讀과 아울러 다음의 1. 檢谷洞 遺墟碑閣 建立에 對한 經過, 2. 冷平國 大夫人 壇碑 改 豎 經過, 3. 忠烈公 神道碑閣 建立 推進에 對한 經過, 4. 定款改正에 對한 經過, 5. 獎學財團 設立 推進에 對한 經過, 6. 大宗會報 發刊에 對한 經過, 7. 世系年鑑代金 納付에 對한 經過, 이어서 感謝牌·祝賀牌·獎 勳牌 等を 授與하였는데 그 內容은 다음과 같다.

● 感謝牌(一名)  
鳳會(都評議公派)  
東瑞文化社 代表(社長)이며, 大宗會 理事로서, 「大宗會 報 發刊」에 있어, 綿密한 企劃과 技巧한 印刷術로 多年 間 實費奉仕하였으며, 每年 「月曆 數百部」式을 無料 寄贈한 誠意에 對한 感謝牌



會 會 會  
明 崙 鳳  
金 金 金  
發行人 編輯人 印刷人  
發行處  
서울·東大門區 敬慶洞 112-49  
安東金氏大宗會中央本部  
電話: 244-3717  
對替口座: 010983-31-0513119  
私書函: 서울 清涼洞 郵局 137號

(非賣品)  
이 會報는 通常會費 年間 2千원 以上을 納入한 宗親에게 無償으로 配付 하오니 未納入한 宗親께서 는 卽時 納付 하오니 주시기 바랍니다.

會)로부터 一九八六年度 豫 算案을 提示한바 모두 無修正 通過되었다.  
(決算報告書와 豫算書 3面 參照)  
그런데 이번 總會에서 가장 아쉬운 일은 多年間 懸案中이던 定款改正案이 留保된 事 實이었다.  
大宗會 定款은 創立 當時에 制定되어서 이미 二十年이 가 워졌고, 따라서 大宗會는 날로 發展하여 顯著하게 달라진 現實을 勘案할때, 定款改正의 時宜함을 느끼게 되었고, 一九八五年 四月二十九日 定期總會에서 定款改正委員會를 構成해서 이를 起草하고 次年度 總會에서 審議決定하기로 決議되었다.  
이에 따라서 同年 六月十六日에는 全國理事會를 開催하고 여기서 十二名의 定款改正 委員會를 選出하였다.  
● 定款改正委員名單  
大宗會 會長 明會(清州大總長)  
副會長 明會(清州大總長)  
副會長 泰亨(辯護士)  
副會長 泰東(辯護士)  
副會長 相勳(辯護士)  
副會長 相祺  
(前警察署長)  
그런데 사람의 마음은 萬人이 萬가지 生覺이라, 豫 會 檢討한 一部 會員 中에서 많은 條文의 修正을 要한다 는 發言이 있었고, 「通過냐?」 「留保냐?」하는 問題로 長時 間 激論 끝에 結局은 留保되고 말았다.

● 祝賀牌(三名)  
永秀(都評議公派)  
清州大學校 大學院 國文學 科 主任教授이며, 文學評論 家로서, 지난 一九八五年 二月에 中央大學校에서 「文學博士」學位를 取得한데 對한 祝賀牌  
春美(提學公派)·故 泰東 長官(官長女)  
高麗大學校 教授로서, 特別 日本 東京大學校에서 比較 文學에 對하여 많은 研究를 하였고, 지난 一九八四年 九月에 高麗大學校에서 「文學博士」學位를 取得한데 對한 祝賀牌  
泰旭(翼元公派)·大宗會 顧問 吉成氏(長男)  
카톨릭 醫科大學 教授로서, 英國·澳洲·日本 等地에서 醫學에 對한 研究를 쌓고, 의 決算報告와 常任副會長(高會)에 對한 祝賀牌  
一九八六年 二月 二十八日 에 카톨릭 醫科大學校에서 「醫學博士」學位를 取得한 데 對한 祝賀牌  
● 獎勳牌(一名)  
沃珍(都評議公派)·女  
現在 水滸女中 第二學年 在 學中으로 學業成績이 優秀한 뿐 아니라, 特別 秋季部 門에서 天賦의 才質이 있어 全國少年體典, 體操部에서 五個의 金메달(濟州3·浦項2)을 獲得하여 그 將來 가 가장 曠望되므로 이에 對한 獎勳牌  
沃珍 嬢은 今年度 少年體典 에서 또 二個의 金메달을 賞牌 授與에 이어서 常任監 事(脚長)로부터 一九八五年度 의 決算報告와 常任副會長(高會)에 對한 祝賀牌  
★ 社團法人 大韓藥師會에서는 지난 3月 30日, 서울: 江南區 瑞草洞 所在, 藥師會館에서 定期總會를 開催하고, 明燮(翼元公派) 宗親이 大韓藥師會 會長職에 留任되었다.  
★ 崇義殿 春享은 지난 4月 5日, 漣川郡 嶺山面 아미리 廟庭에서 開城王氏宗親會 主管으로 「王太祖 後孫과 功臣家 後孫 150餘名이 參席하여 尹成鎮 漣川郡守(初獻官)의 主祭로 嚴肅히 舉行하였다.  
★ 지난 4月 10日, 按廉使公派 安原君(諱 公亮)派 宗中에서는 盜難 當한 安原君 墓庭 長明燈의 再建과 아울러, 歲久年深하여 磨滅된 墓碑改竅도 함께 하였다.  
(墓所: 驪州郡 興川面 白壤里)  
★ 翼元公派 永安君(諱 壽卿)派 宗中에서는 지난 4月 20日 抱川郡 內村面 雙谷里에 모신 永安君 墓庭에 堅碕하였다  
★ 江華宗親會(會長: 仁植)는 지난 4月 25日 傳燈寺 境內에서 86年度 定期總會를 開催하였다. 男女會員 百數十名이 參席한 이날 總會에서는 哀慶相助에 對한 問題가 討議, 可決되었다.  
★ 大檢察廳, 刑事2部長 東哲(副使公派)氏는 지난 4月 28日 附로 大邱地方檢察廳 檢事長으로 轉補되었다.  
★ 馬山地方檢察廳 檢事長 慶會(提學公派)氏는 지난 4月 28日 附로 仁川地方檢察廳 檢事長으로 轉補하였다.  
★ 江陵檢察支廳長 次會(翼元公派)氏는 지난 4月 29日 附로 大邱高等檢察廳 部長檢事로 轉補되었다.  
★ 新羅汎金氏大宗院 主管으로 奉行된 敬順大王 陵享은 지난 5月 11日(陰 4月 3日), 4百餘名의 後孫이 參席한 가운데, 漣川郡 百鶴面 高浪浦의 陵域에서 奉行되었다.  
★ 忠北道宗親會 및 清州市宗親會(會長 得榮)에서는 지난 5月 18日 清州市內 新羅禮式場에서 百餘名의 宗親이 參席하여, 86年 定期總會를 盛大히 開催하였다.  
★ 大邱市宗親會(會長 鳳俊)에서는 지난 5月 25日, 東村遊園地內 시민식당에서 百餘名의 宗親이 參席하여 '86年度 定期總會를 開催하였다.  
★ 經濟企劃院[公正去來室 團體課長 炳日(都評議公派)氏는 지난 7月 1日 附로 同院 物價政策局 調定課長으로 轉補 되었다.  
★ 世運興業會會長 慶浩(開城尹公派)氏는 지난 7月 2日 附로 平北 博川郡守로 任命되었다.

# 祝 發 展

翼元公派  
金 在 冕  
서울·城東區 紫陽二洞 六九五  
한양 APT 五棟 一〇五

清州大學校 藝術大學  
教授 金 在 寬  
(按廉使公派)  
清州市 榮洞 一四一七  
電話: 二一三五八六

翼元公派  
金 在 環  
서울·東大門區 祭基洞  
미주 APT A棟 九一〇

翼元公派  
金 源 永  
榮州市 赤西洞

翼元公派  
金 國 植  
서울·永登浦區 永登浦洞 四街 二九

安東金氏清州市宗親會  
會長 金 得 榮

(前號에서 계속)

이러한 때에, 새로 구린지, 왕국창(王國昌), 홍다구(洪茶丘) 등의 인솔한 병단이 들어왔기 때문에, 개정은 완전히 몽고의 군도(軍都)가 되어 버렸다. 고려병은 왕궁(王宮)에 배치되어 있는 극히 소수의 백명이 채 못되는 병정 밖에 없었다. 이 몇십년간 고려가 유일한 방위병력(防衛兵力)으로서 가지고 있던 삼별초(三別抄)는 이제 반란군(叛亂軍)이 되어 버렸고, 지방 지방에 다소의 병력은 잔존(殘存)해 있었으나, 그것을 개정에 이

주(移駐)할 수는 없었다. 국신사(國信使趙良弼) 이 일본으로 출발한, 그가 들어와서 처음으로 알은 일이었지 만은 돌아오는 기일은, 가을 九월이 예정이었다. 새로 들어온 몽고군은 조양필이 일본에 갔다가 그가 귀국할 때까지의 기간, 금주(金州), 합포(合浦) 부근에 주류(駐留)할 임무를 띠고 있는 것으로서, 그 주류기간은, 국신사의 출발이 가을이라고 한다면, 이해 가을로부터 내년까지 걸치는 일로서, 무척 빠르다고 말할 수 없었다. 따라서 이 병단은 九개월이나 빨리 고려에 들어와서, 그때까지의 긴 동안, 이 나라에 머무르고 있는 셈이다. 실질상(實質上) 고려의 도읍은 지금이야말로 완전히 몽고군에 점령 당하여 있는 상태였다.

三월三일, 몽고에서 혼도(忻都), 사추(史樞) 등 두 사람의 사자(使者)가 달려왔다. 두 사람은 세조 후비(후비)로 부터의 조서(詔書)를 휴대(携帶)하고 왔다.

一점(朕)이 일찌기 수신사(修信使)를 파견하여, 일본에 대하여 통유(通諭)하도록 하였는데도 어찌된 일인지, 분명치 않고 고폐(固閉)하여, 좋은 말로써 사리(事理)를 잘 알아 들도록 타이르기가 힘들었다. 이것은 경(卿)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지금으로부터 장

차 일본에 대하여 경략(經略)을 세우고자 한다. 유사(有司)에 칙령(勅令)하여, 군사를 발동시켜 둔전(屯田)시키고, 진취(進取)의 계획을 하고자 한다. 바라전대, 타일(他日) 그대의 나라에도 전수(轉輸)의 폐(弊)를 면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다시 사자(使者)를 파견하여, 조서(詔書)를 보내서 먼저 초회(招懷)를 보이고자 한다. 경(卿)도 정성을 다하여, 깊이 생각하고, 방략(方略)을 찬동하고, 될 수 있는 한 짐朕의 뜻에 따라주기를 바란다.

말할 것도 없이 둔전설치(屯田設置)의 조서(詔書)였다. 이 장용이 걱정하고 있던 일은 현실로 나타났던 것이다. 사자(使者) 혼도(忻都), 사추(史樞)가 배척되는지, 혹은 새

# 風濤

(13) 井上靖 著  
金崙會 譯

론은 몽병(蒙兵)의 입국을 보게 될지는 예측할 수 없으나, 그러나 어떻게 되어버린 이상, 그것은 어떻게 되었는지 대단한 일은 아닙니다. 둔전병(屯田兵)에 의한 여러가지 물자(物資)의 징발 때문에 고려는 금후 큰 곤란을 가지게 되나, 이것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신(臣)은 최근 노쇠(老衰)한 메다가 여러가지 병(病)에 걸려, 계속 고통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고통이라는 것은, 그것이 닥칠 때까지는 도저히 참기 어려운 것으로 생각되지 만은 그것이 닥치고 보면, 의외로 참아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왕(王)께서도 참고, 나의 배설물도 참고나가지 않 으면 아닐 것입니다. 그리 고, 그러한 고통을 참고 견디 면서, 왕(王)께서 두가지 일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는 하루 속히 내란(內亂)을 진압하는 일입니다. 또 하나

는 작년(昨年) 연말경에 상주(上奏)한 일인데, 여기에 글 로써 아뢰는 것은 위대한 일 임니다만은 그것을 꼭 실행하 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조의 일본에 대한 생각은 지금에서야 겨우 분명해졌읍니다. 만일 일본에 대해서 정벌군(征伐軍)을 발동하게 된다면, 그것은 고려의 고통이 되기 보다는, 그것은 죽일 일입니다.

원종은 이장용이 자기에게 하고 싶었던 말이 무엇인가를 묻 고 싶었다. 그것을 임의로써 말 한 때의 이장용의 군은 표정 까지 분명히 깨달았다. 그것은 고려 독자(獨自)의 입장에서, 조양필(趙良弼)이 일본에 가 기 전에 사자를 먼저 일본에 파견하는 일이었다. 그것이 파 연 효과는 나타낼는지 아닌지는 알 수 없으나, 원종은 그 것을 실행하려고 생각하였다. 다만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적지 않은 결의(決意)가 필요 하였다. 말하자면 세조 후비 라이에 대한 배신행위이고, 그렇게 할려면 누구도 알지 못 하게 비밀로 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만일, 이것이 발각 된 경우에는 고려로서도 또 원종으로서도, 용이치 않은 운명을 갖게 될 것이다. 이가 을(秋)에 조양필(趙良弼)이 일본 본에 가는 용무는 분명히 일본에 정벌군을 발동하느냐 않느냐를 결정하는 것이고, 따라서 또 고려의 운명을 좌우 하는 것이기도 하였다. 그러한 사고(思考)방식을 한다면, 만 일 할 수 있는 방책(方策)이 있다면, 고려로서는 자국의 운명을 위하여 그것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였다. 일본에 정토군(征討軍)을 파견하게 된다면, 그야말로 이장용이 말한 바와 같이 고려에 닥쳐올 것은 죽음뿐이었다.

둔전경략사 혼도(屯田經略使忻都), 사추(史樞)는 개경(開京)에서 수일이 지나서, 중서성(中書省)에서 후대(携帶)하고 왔던 둔전(屯田)에 관한 문서(文書)를 원종앞에 제출

하였다. 몽고가 계획하고 있 는 고려에 있어서 둔전(屯田)이 어떠한 것이며, 거기에서 내 해서 고려가 어떠한 책무(責務)를 질 것인가를 명확히 한 것이었다. 최초 그것을 혼도(忻都)와 사추(史樞) 두 사람이 이 보충(補充)해서 설명하였 다.

거기에 의하면, 둔전(屯田) 관계의 일체의 일을 감독하는 관아(官衙)를 둔전경략사(屯田經略司)라고 칭하고, 이것을 동녕부(東寧府)의 치하(治下)에 있는 봉주(鳳州)에 두었다. 둔전(屯田)의 장소는 개경, 동녕부, 봉주, 황주(黃州), 금주(金州) 등 11개소. 둔전(屯田)의 군병은 현재 고려에 주둔(駐屯)하는 몽고군(蒙古全軍)의 원종은 두 사람의 말하는 것을 듣고는 한 숨을 쉬었다. 둔전(屯田)의 군병(軍兵)이 현재 고려에 주둔하고 있는 몽고군(蒙古全軍)의 원종은 막대한 수요(要求)에 달하도록 노력할 것이다. 군량(軍糧)도 힘을 다하여, 귀국의 병마(兵馬)들을 굶기지 않도록 노력하였다. 고려의 군신(君臣)이 이러한 문제의 처리에 가장 분방 하고 있는 가운데, 삼별초의 세력이 점차로 강대해지고 있다는 정보가 계속 개정에 들어 오고 있었다. 삼별초(三別抄)는 서쪽은 전라남도의 장흥부(長興府)로부터 동쪽은 경상남도의 합포(合浦), 금주(金州)에 이르기까지, 남해(南海)의 주현(州縣)을 침략(侵犯)하고, 이제 곧 삼천여의 도서(島嶼)를 자기 수중에 넣 었다. 둔전경략사 혼도(屯田經略使忻都)는 개정에 도착 하자마자 몽고주둔군의 전부를 통솔할 역할을 맡았다. 전 선으로부터 아해(阿海)는 소 환을 당해서 귀국하고, 혼도(忻都)가 아해(阿海)의 통솔 하던 병단도 또 혼도(忻都)의 통솔하에 들어갔다.

(다음號에 계속)

은 작년(昨年) 연말경에 상주(上奏)한 일인데, 여기에 글 로써 아뢰는 것은 위대한 일 임니다만은 그것을 꼭 실행하 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조의 일본에 대한 생각은 지금에서야 겨우 분명해졌읍니다. 만일 일본에 대해서 정벌군(征伐軍)을 발동하게 된다면, 그것은 고려의 고통이 되기 보다는, 그것은 죽일 일입니다.

원종은 이장용이 자기에게 하고 싶었던 말이 무엇인가를 묻 고 싶었다. 그것을 임의로써 말 한 때의 이장용의 군은 표정 까지 분명히 깨달았다. 그것은 고려 독자(獨自)의 입장에서, 조양필(趙良弼)이 일본에 가 기 전에 사자를 먼저 일본에 파견하는 일이었다. 그것이 파 연 효과는 나타낼는지 아닌지는 알 수 없으나, 원종은 그 것을 실행하려고 생각하였다. 다만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적지 않은 결의(決意)가 필요 하였다. 말하자면 세조 후비 라이에 대한 배신행위이고, 그렇게 할려면 누구도 알지 못 하게 비밀로 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만일, 이것이 발각 된 경우에는 고려로서도 또 원종으로서도, 용이치 않은 운명을 갖게 될 것이다. 이가 을(秋)에 조양필(趙良弼)이 일본 본에 가는 용무는 분명히 일본에 정벌군을 발동하느냐 않느냐를 결정하는 것이고, 따라서 또 고려의 운명을 좌우 하는 것이기도 하였다. 그러한 사고(思考)방식을 한다면, 만 일 할 수 있는 방책(方策)이 있다면, 고려로서는 자국의 운명을 위하여 그것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였다. 일본에 정토군(征討軍)을 파견하게 된다면, 그야말로 이장용이 말한 바와 같이 고려에 닥쳐올 것은 죽음뿐이었다.

둔전경략사 혼도(屯田經略使忻都), 사추(史樞)는 개경(開京)에서 수일이 지나서, 중서성(中書省)에서 후대(携帶)하고 왔던 둔전(屯田)에 관한 문서(文書)를 원종앞에 제출

하였다. 몽고가 계획하고 있 는 고려에 있어서 둔전(屯田)이 어떠한 것이며, 거기에서 내 해서 고려가 어떠한 책무(責務)를 질 것인가를 명확히 한 것이었다. 최초 그것을 혼도(忻都)와 사추(史樞) 두 사람이 이 보충(補充)해서 설명하였 다.

거기에 의하면, 둔전(屯田) 관계의 일체의 일을 감독하는 관아(官衙)를 둔전경략사(屯田經略司)라고 칭하고, 이것을 동녕부(東寧府)의 치하(治下)에 있는 봉주(鳳州)에 두었다. 둔전(屯田)의 장소는 개경, 동녕부, 봉주, 황주(黃州), 금주(金州) 등 11개소. 둔전(屯田)의 군병은 현재 고려에 주둔(駐屯)하는 몽고군(蒙古全軍)의 원종은 두 사람의 말하는 것을 듣고는 한 숨을 쉬었다. 둔전(屯田)의 군병(軍兵)이 현재 고려에 주둔하고 있는 몽고군(蒙古全軍)의 원종은 막대한 수요(要求)에 달하도록 노력할 것이다. 군량(軍糧)도 힘을 다하여, 귀국의 병마(兵馬)들을 굶기지 않도록 노력하였다. 고려의 군신(君臣)이 이러한 문제의 처리에 가장 분방 하고 있는 가운데, 삼별초의 세력이 점차로 강대해지고 있다는 정보가 계속 개정에 들어 오고 있었다. 삼별초(三別抄)는 서쪽은 전라남도의 장흥부(長興府)로부터 동쪽은 경상남도의 합포(合浦), 금주(金州)에 이르기까지, 남해(南海)의 주현(州縣)을 침략(侵犯)하고, 이제 곧 삼천여의 도서(島嶼)를 자기 수중에 넣 었다. 둔전경략사 혼도(屯田經略使忻都)는 개정에 도착 하자마자 몽고주둔군의 전부를 통솔할 역할을 맡았다. 전 선으로부터 아해(阿海)는 소 환을 당해서 귀국하고, 혼도(忻都)가 아해(阿海)의 통솔 하던 병단도 또 혼도(忻都)의 통솔하에 들어갔다.

(다음號에 계속)

京畿工業開放大學  
教授 金 載 鴻

서울·東大門區中和一洞二九〇-1111  
電話·四三四一八七五三

翼元公派  
金 煥

大宗會 顧問 (前副會長)  
辯護士 金 泰 亨 (翼元公派)  
서울·中區 太平路2街 361 (근원빌딩 402호)  
電話. 事. 755-4866  
宅. 562-1613

都 評 議 公 派  
金 熙 烈  
日本國 愛知縣 江南市 山尻町 大桑36番地  
電話 (0587) 54-5006





# 故金思達博士遺品 清大에 寄贈 藏書等 2,400余點 遺家族 通해 傳達

지난 5月 30日 午前 11時에 淸州大學校 中央圖書館 3層 參考閱覽室에서 故 西峰 金思達 博士의 遺品圖書의 寄贈式이 舉行되었다.

이 날 寄贈式에는 未亡人 趙男順 女史와 長男 在燦氏, 故人之 同生 思興氏로 하여금, 淸州大學校 財團 理事長 金俊喆 先生을 비롯해서, 總長 明會(大宗會長) 博士, 各處 課長 및 많은 來賓과 多數의 學生이 參席한 가운데 寄贈되었는데, 淸州大學校가 受贈한 圖書는 承政院日記(影印本) 31卷 과 單行本等 2,271卷 故人之 著述이 담긴, 各種 刊行物 158卷으로 모두 2,329卷이며,

그 밖에도 大型壽石 1點, 大理石卓子 1臺, 벼루 2點 그리고 故人之 生前에 國展 入賞作品인 親筆書藝 3點도 함께 寄贈되었다. 特히 이번에 寄贈된 『承政院日記』는 西峰에서 國會文公委員 專問委員으로 있을 때 寄贈받은 것으로, 李朝 五百年의 歷史가 昭詳히 記錄된 數百卷의 秘書를 31卷으로 縮少影印한 珍書로서, 이야말로 遺家族에게는 貴重한 家寶로 여기지 않을 수 없었다. 또 故人之 文香이 풍기는 著作物은 主로 人生哲學이 담긴, 隨筆이나, 故人之 平生을 두고 研究하고 臨床에서 實驗한 醫學書籍으로, 그 所重함이 또한 높히 評價되고 있다.

趙 女史나 遺子女들은 本來 이렇게 貴重하고 甚大한 書冊을 淸州大學校에 寄贈할 생각은 아니었다. 「故鄉인 槐山郡 靑川面 華陽洞 入口에는 故人之 生前에 세운 墨蹟碑가 있고, 그 옆에 塚地를 마련해서 記念館을 지어, 모든 遺品을 保管할 計劃이였으나, “學校에 寄贈해서 後進들의 學術研究에 도움이 되게하는 것이 故人之 遺志에 順應하는 길이다. 는 뜻에서 家族會議를 열고, 이렇게 決定했다」고 趙 女史는 말하고 있다.



### 西峰 金思達 博士 圖書 寄贈式 光景

또, 淸州大學校에 寄贈하게 된 動機는 故人之 故鄉이 忠北이란 點도 있지만, 淸大 設立者인 金元根氏 兄弟의 苦生한 點이 故人之 苦生한 點과 비슷하고, 82년에는 客員教授로 나온일도 있어, 더욱 情이 갔다는 것이었다. 한편, 淸大 圖書館에서는 參考閱覽室의 一部에 따로 書架를 마련하고, 이번에 寄贈된 圖書를 陳列해서 『西峰 金思達 文庫』로 이름하여 保管하게 되었다.

## 沙村西林에 事蹟碑建立

### 在日宗親熙鶴 熙範氏 兄弟誠金으로

지난 三月二十三日, 慶北 義城郡 點谷 面沙村洞 都評議政廳 所有인 西林(俗稱 加로수)에서는, 많은 來賓과 宗親들이 參席한 가운데 『沙村西林事蹟碑』를 建立하였다. 이 西林은 沙村마을에 西方(西)의 虛를 막기 위해 造林한 人作林으로 그 歷史는 卽마우하며, 忠烈公의 五代 孫인 高麗監牧官(諱子瞻)公이 楡谷洞에서 이 곳 沙村으로 移居하신 後, 六百餘의 歲月을 두고 지켜 온, 由緒깊은 沙村마을의 保護林인데, 둘레 三(四)M, 높이 一五(二〇)M의 雜木은 樹種만도 數十種이나 되며, 그 蒼然한 姿勢는 能히 千年 歷史를 證明하고 있다. 大谷川의 兩岸을 끼고 巨木이 列立한 이 숲의 規模는 八, 七四六坪의 面積의 에 南北의 길이가 一km, 東西의 幅이 五 十餘M로서 많은 野生鳥類와 다람쥐, 갈은 小獸가 棲息하고 特히 夏節에는 候鳥(왜가리)의 蕃殖光景은 一大壯觀이 기도 하며, 冬節은 防風林으로, 夏節은 人畜의 避暑林으로 大用을 保護해 온, 守護神같이 恩惠로운 存在이기도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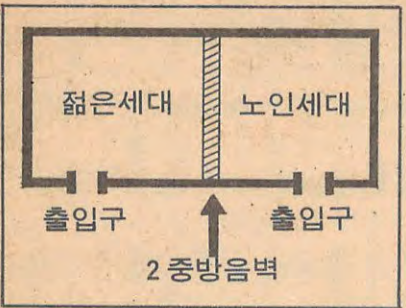
뿐만 아니라, 이 西林에 關한 많은 傳說中에서도 特히 宣祖 때 領議政으로서 壬辰倭亂을 승기롭게 克服한 西厓 柳成龍 先生의 出生에 對한 說話를 지닌 史蹟地의 價値도 充分한 곳으로서 慶尙北道에서는 西紀一九七二年에 保護林 一等級 九一七五號로 指定되고 行政機關에서는 自然保護의 一環으로 管理에 盡力하고 있다. 그런데, 이번에 在日宗親인 熙鶴, 熙範氏의 兄弟는 비록 日本 땅에서 生長하였으나, 愛郷心과 祖上님이 남긴 西林의 歷史를 後世에 永遠히 남기자는, 透徹한 精神으로 巨財를 投入하고 點谷面長沙秀氏의 主管下에 雄壯하고 華麗한 碑를 세우고 『沙村西林事蹟碑』라 하였다.

## 人間教育과 住宅構造

### 按廉使公派 金道振

경제, 技術, 예·체능 등 교육에만 重하고 있는 우리나라 現實 狀況에서 人間教育은 家庭·學校·社會·政府, 모든 分野에서 도외시 당하고 있는 實情이다. 高度 經濟成長의 물결을 타고 반감지 않은 핵가족 現狀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現實 狀況에서 家庭教育의 空白은 젊은 父母들의 勿理解와 더불어 더욱 甚化돼 가고 있는 實情이다. 祖父母를 모시지 않고 핵가족만의 생활에 아빠와 엄마의 맞벌이, 혹은 복잡하고 분주한 都市 生活에서는 엄마의 同窓會, 제모임, 장학회 등의 交際는 外出로 질을 비우는 경우가 많은 實情에서 家庭教育이 단적으로 어려운 狀況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人間教育의 가장 重要한 幼兒教育(三才(六才)은 미국의 정신분석학자 프로이트의 「六才」 미만에 인격 형성의 거의 완성된

다 라는 說이나, 「세살까지 버릇 여든까지 간다」 「미운 굴살」이라는 우리 俗談이 있듯이 잘 보살핌을 받고 교육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유아 교육은 거의 空白狀態에 이르른다. 뿐만 아니라 핵가족 상층에서는 老人問題 또한 困難한 지경에 이르게 된다. 先進國과 같이 老後를 國家나 社會에서 經濟적으로 保障하는 社會에서 가지 精神的, 고독과 의로움으로 自殺이라는 비극으로 가는 例가 속출하는 마당에 우리는 아직 經濟的 老後 保障이 되어있지 않은 現實에서야 더 말할 나위 없이 老人問題의 甚覺性을 느끼게 한다. 먼저 말한 幼兒教育의 缺如 人間教育의 欠乏은 社會의 不良少年 問題를 일으키고 나아가서는 高질적인 우리 社會問題인 學生代모, 世界 第一의 交通事故國, 노사분규로



인간 企業의 到産 등등 크나 큰 문제들을 안고 있게 된 것이다. 이런 모든 社會問題는 그 原因을 여러 곳에서 찾을 수 있다고 하겠지만 모든 問題는 사람이 다루고 사람이 하는 일이나 人間自體에 가장 重要한 原因이 있다고 보아 이를 人間教育的인 面에서 解決할 수 있다고 確信한 父母에게 안심하고 幼兒들을 맡길 수 있으니까 마음은 느릴 뿐 아니라 空白狀態의 家庭教育은 가장 理想的인 家庭교육이 될 것이다. 실사 祖父母가 많은 學校에 다니지 않았거나 或 自身을 젊어서 과히 좋지 않은 일을 했다면 그 子孫에게는 自己의 오랜 經驗과 같은 思想로 올바른 人間이 되도록 교육할 것이 人間의 本能이라. 또한 老父母를 옆에 모시고 살 수 있으니까 자연이 孝道를 잃지 않게 되어 孝道할 것이니 어린 子女들에게 지킬 것이니 家庭教育 또한 저 정도로 도움이 될 것이다. 政府當局과 주택공급 업체 들도 無條件 西洋風만을 비판 없이 받아들여야 西洋式 아파트만을 建築하여 無비판적 人 大衆에게 提供할 것이 아니라 이러한 社會教育 側面도 考慮하여 住宅構造를 고려해 주기 바란다.

## 變遷하는 理知를 美術로 相剋 調和 絶讚

### 淸大教授 在寬宗新 美術 個人展 盛了

淸州大學校 藝術大學 教授 在寬(按廉使公派) 氏는 지난 五月二十七日 부터 六月二日까지 七日間, 弘益大學校 正門 앞, 後画廊에서 美術個人展을 갖고, 盛況裡에 끝마쳤다. 忠北 淸州에서 出生하여 淸州高等學校를 卒業하고, 弘益大學校 美術大學과 同 大學院에서 西洋畵를 專攻한 在寬教授는 國內에서도 서울을 비롯해서 釜山, 大邱, 淸州, 群山 等地에서 三十餘次나 美術展과 招待展에 參加하였고, 個人展만도 國內과 日本에서 七次나 가졌다. 또 日本의 東京, 大阪, 福岡 等地에서 出品한 作品은 모두 絶讚의 好評을 받았고 美術評論家 山岸信郎 氏는 「韓國의 美術은 가늘 하냐고 討論中에서도 明白한 解答을 願하는 韓國의 國民性을 짐작해 볼 때, 在寬 氏의 作品이 있는 것은 當然하다」고 論評하고, 「東洋의 人」 空間意識과 西洋의 것으로 變遷하는 「理知」에서 相剋과 調和의 새로운 世界를 열어 주고 있다」고 말하였다.





『東征日本』  
 이 말만 들어도 戰慄을 禁치 못할 歷史의 端面이다.  
 그러나, 그 戰況의 記錄이란 다만 出征이나, 歸還에 대하여 高麗史나 忠烈公 行狀에 簡略하게 記錄되어 있을 뿐, 全面的인 事實은 찾아 볼 수 없는 안타까운 心情 또한 없지는 아니었다.  
 한편, 國

家の 存亡이 頃刻에 놓였든 日本側은 當時의 戰況을 『八幡愚童記』·『蒙古襲來繪詞』·『勅仲記』·『壬生官務家日記抄』 등에서 볼 수 있어 史家의 研究에 도움을 주고 있다.  
 따라서 이 戰鬪에서 赫赫한 武功을 세우신 忠烈公 先祖의 一代記에 日本側의 記錄 또한 한층이 될까? 하여, 이를 參考로 當時의 戰況을 다들어서 連載할까 하는 바이다.

實로 四次의 使者였다.  
 九月十七日 金有成 등은 對馬島의 伊奈浦에 到着, 이어 大宰府의 守護所에 到着하였다.  
 이 때 日本의 朝廷에서는 비로소 答信을 보내자 하고 翌年 一月에 스가하라(菅原長成)에게 草案을 作成케 하였다. 蒙古에는 日本의 太政官이 中書省에 보내는 回答이었고, 高麗에는 大宰府 守護所에서 慶高 安東道 按察使에게 보내는 書信으로 모두가 國書의 体裁을 取하지 않았다.  
 그 내용은 "日本은 神國이라, 어떠한 威嚇에는 屈하지 아니한다 하여 拒絶의 뜻을 分明히 밝혔고, 高麗에 대해서는 "浮虜를 無事히 送還해 주어서 厚意를 謝한다"는 內容이 記錄되었다.  
 그러나, 幕府에서는 "前者의 牒狀이 너무나 無禮했다"는 理由를 세워 使者를 돌려 보내고, 朝廷에서 送付된 回信의 草案은 봉쳐 구겨버렸다.  
 이렇게 해서 金有成의 一行이 日本本土를 밟게 된 것은 蒙古로서는 두번째이며, 蒙古에서 보내지는 네번째가 되어 도벌다운 成果를 얻지 못하고 돌아가게 되었지만, 한편으로 日本의 朝廷이나 幕府로서는 安逸할 수가 없었다.  
 첫번째 使者가 다녀간 후부터 幕府에서는 西方의 御家人에게 "異敵"의 防備에 萬全을 期하도록 命令하였고, 또 日本의 朝廷이나 幕府에서는 "異敵退散"을 위하여 神佛에게 祈願하는 갖가지 報賽의 行事가 盛行하였다.  
 이러한 行事는 해가 거듭될수록 各地의 大刹이나 神社에서 行해졌으나 軍備에 대해서 는 그다지 注力하지 않았다.  
 京都의 正傳寺에 있는 東嚴慧安이란 僧侶는 宋나라에서 온 元庵普寧이 日本에 와 있을 때, 가장 親密한 法弟로서 가장 熱心히 祈禱文을 지어서

蒙帝인 世祖 후비라이가 "일본의 奉服을 諭示하는 詔書를 傳達하기 위한 使者를 日本으로 派遣하기는 無慮 四次例나 되었다."  
 一二六六年(元宗 七)十一月二十五日 日本國王에게 兵部侍郎 赫德(或은 黑的이라고도 한)과, 副使인 禮部侍郎 股弘의 두 사람이 처음으로 日本國王에게 보내는 世祖의 國書를 가지고 開京에 나타났다. "高麗에서 그 길을 案内하라."는 것이었다.

로 하여금, 蒙使를 案内케 하여 日本을 向해 出發시켰으나 그들은 巨濟島의 松邊浦까지 가서 "멀리 對馬島를 바라다 보니 萬里大洋에 風濤가 蹴天"함을 보고, 使命의 結果를 볼 수 있는 自信을 잃고 돌아와

大宰府에 接受된 國書가 約四日後에 비로소 가마쿠라(鎌倉)에 있는, 幕府에 回附되었고, 이 國書는 다시 一個月後인 二月 七日에는 京都의 朝廷에 奏上되었다.  
 國書를 받은 日本朝廷에서 連日을 두고 會議가 거듭되었고 十九일에 드디어 "返牒할 수 없다."고 決斷지우고 말았다.  
 그것은 그렇고, "返牒할 수 없다."는 結定을 내린 이상, 日本側에서는 當然히 蒙古의 兵馬를 맞이할 覺悟를 하여야 했다. 그리고 二月 二十五日에는 朝廷에서 모든 大社에 "蒙古의 難"을 告하는 行事를 하고 幕府에서는 西國의 御家人에게 "異敵의 來襲에 대한 防禦에 徹底를 期하라."고 命令하였다.

石清水八幡의 神前に 奉呈하였고 日蓮이란 僧侶는 "邪教 破折"을 외치면서, 法華經의 布教에 精誠을 기울였다.  
 뿐만 아니라, 當時의 執權者인 호조(北條時宗) 또한, 禪에 歸依하는 精誠이 뒤떨어지지 않아 宋나라에서 온 大休正念이란 僧을 禪興寺에 起居하게 하면서 그 德化에 傾倒된 狀態였다.  
 日本의 態度를 이렇게 取하자, 世祖는 日本征伐의 決心을 굳게 가졌지만 高麗의 政勢가 不安定한 狀態로는 計劃을 앞당겨 敢行할 수는 없었다.  
 蒙古兵이 高麗의 全國土를 蹂躪한지, 四十餘年... 高麗를 등지고, 蒙古로 歸附하는 叛逆의 무리는 날로 늘어나고 甚之於 崔坦이나 韓慎같은 者는 叛亂으로 北界의 全域을 蒙古에 歸屬시켜 自身들의 榮華를 찾게 되니 元宗은 할 수 없이 臣屬의 誼를 締結하였으나, 高麗가 蒙古의 支配를 즐거지 한 일은 아니었고 다만 百姓의 苦難을 얼마만 치라도 輕減하자는 뜻에서 服屬한 處事이나, 抗戰을 위해서 組織된 三別抄 軍隊는 江都에 머물면서 還都를 反對하며, 王命을 拒逆하고 叛亂의 狀況으로 突入하게 되니, 元宗은 할 수 없이 三別抄의 解散을 命하였다. 그러나, 三別抄의 部隊는 이에 服從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襄仲孫을 將軍으로 삼고 王族인 승화후(承化)를 모시고 擁立하여 나라의 寶庫인 金剛庫를 부수고, 武器와 모든 財物을 掠奪하였다. 그리고 고는 一千隻의 舟船을 모아, 大小官員의 家族과 島民을 모조리 실고 南으로 내려가서 珍島에 據點을 잡고, 宮闕을 짓고, 隣近 州縣에 出沒하면 寺良民의 財産을 奪取해 가니, 世祖로 바서는 日本征伐에 앞서, 三別抄의 討逆이 더욱 急한問題가 아닐 수 없었다.

# 日本史에서 본 東征記

## ~ 1 ~

上天眷命 大蒙古國皇帝奉書 日本國王朕惟自古小國之君 境土相接尚務講 信睦況我 祖宗受天明命奄有區夏邊方 異域畏威懷德者不可悉數朕 即位之初以高麗尤尊之民久 瘁鋒鏑即命罷兵還其疆域反 其旄倪高麗君臣感戴來朝義 雖君臣歡若父子王之君臣計 知之高麗朕之東藩日本密邇 高麗開國以來時通中國朕躬 之以一乘之使無通和好尚恐 王之國未審是知故遣特使持 書朕志布告冀自今以往通問 結好以相親睦且聖人以四海 爲家不相通好豈一家之理哉 至用兵夫 王其圖之不宣 孰所好 至元三年 八月 日

이래 日本 幕府의 實權은 北條氏가 잡고 있었고, 執權者인 호조 마사무라(北條政村)는 高齡이므로 嫡子인 十八歲의 도키무네(時宗)에게 執權의 자리를 넘기고 마사무라는 도키무네를 도와고 있었다.  
 日本의 當局者들이 이렇게 悲壯한 決意로 態度를 取한것은 文明國問의 外交 實例上으로 볼 때 無禮라 아니할 수 없으니, 그 要領을 잡지 못하 는 것은 高麗에서 온 潘阜였 다. 潘阜는 數個月 동안이나 大宰府에 軟禁狀態로 있게 되 고, 아무런 答書도 받지 못하 니 마음에 不安과 焦燥함을 느끼게 되어 各方으로 要路에 嘆願도 했으나 끝내 成果를

위의 글은 日本의 東大寺에 所藏되어 있는 世祖의 國書 原文이다.  
 元宗은 할 수 없이 樞密院 副使 宋君斐와 侍御史 金贊을

버렸다. (이는 高麗宰相 李藏用이 平素에 親交가 깊은 蒙使 赫德에게 暗示한 秘密計劃 이었다고 한)  
 그러나 世祖의 震怒는 大端 하였다. 그 해 八月에 赫德과 股弘은 다시 日本國書 傳達의 使命을 띠고, 開京에 와서 潘阜를 帶同하고 九月 二十三日 에 日本의 旅程에 올라, 翌年 (二六八) 正月에 日本당인 九州의 大宰府에 到着하였으 니 大宰府는 幕府에 直屬된 行政機關으로서, 對外關係의 第一線 業務를 맡고, 國家를 守護하는 責務를 掌管하는 機關은 幕府이었다.

이러한 行事는 해가 거듭될수록 各地의 大刹이나 神社에서 行해졌으나 軍備에 대해서 는 그다지 注力하지 않았다.  
 京都의 正傳寺에 있는 東嚴慧安이란 僧侶는 宋나라에서 온 元庵普寧이 日本에 와 있을 때, 가장 親密한 法弟로서 가장 熱心히 祈禱文을 지어서

- 郡事公派 扶餘郡 林川面 豆谷里
- 密直司使公派 金 榮 應 서울·西大門區弘濟三洞二七〇—一一二
- 密直司使公派 金 聖 會 서울·城北區三仙洞二街二八〇
- 正儀公派 金 泰 國 高陽郡 一山邑 一山里 六二七
- 翼元公派 金 桂 會 光州市北區中興二洞二五八—一八
- 翼元公派 金 湧 信 木浦市南橋洞 八四—七 電話: 四三—二五〇二
- 都評議公派 金 漢 秀 서울·江東區 馬川一洞 三三—二四 電話: 四七三—三七四三

